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파스카 신비

신성근 신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명을 시작하신 초기부터, 일부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뜻을 모았다(마르 3,6 참조)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을[1] 보고 악의를 가진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마귀에 들렸다고 의심하기도 했다(마르 3,22 등 참조).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모독하고(요한 5,1-8 참조), 거짓 예언을 한다고(요한 7,1-2 참조) 비난받았다.[2]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많은 행동과 말씀은 일반 군중에게보다는, 유다인들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욱 "반대를 받는 표징"이었다(루카 2,34 참조).[3] 이처럼 온 삶이 "반대 받는 표징"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파스카 신비는, 사도들과 그 뒤를 이어 교회가 세상에 선포하는 기쁜 소식의 핵심이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구원자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단 한 번"(히브 9,26)에 이루어졌다.[4]

I.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1. 십자가의 외적 원인

1) 가르침에 대한 반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의 패망과 유배 생활을 겪으면서, 하느님과 맺은 계약에 충실하는 것만이 옛 영광을 되찾는 길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어김없이 지키는 등 하느님과의 계약에 충실히 하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안식일을 지나치게 고집함으로써, 마침내 율법의 참뜻에서 멀어진 형식주의에 빠지고 말았다.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는 어긋나는 내용으로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가르치셨다(마르 3,27 ; 7,9 참조).

그리고 당시의 지도자로 자처하던 율법 학자와 바리사이들의 허구와 위선을 꾸짖으셨다(마태 23,1-36 ; 루카 11,37-54 ; 마르 12,38-40 참조). 예수님으로부터 몹시 자존심을 상한 이들은, 예수님에게 보복하고자 모의하였다(루카 11,53-54 ; 요한 5,16 참조).

2) 신성 모독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선언은 충격이었다(요한 6,41 ; 17,11 ; 마르

---

1) 마귀를 쫓아내심(마태 12,24 참조), 죄를 용서하심(마르 2,7 참조),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심(마르 3,1-6 참조), 율법상의 정결에 대한 독창적 해석(마르 7,14-23 참조), 세리와 죄인으로 낙인찍힌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심(마르 2,14-27 참조).

2) 가톨릭 교회 교리서, 574항.

3) 575항.

4) 571항.

2,28 참조) 당시의 사람들 특히 유다인들에게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종교적 범죄였다. 그들의 왜곡된 하느님께 대한 충성심은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3)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생각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기를 오랫동안 고대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국권을 회복시키실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세리와 식사하시며, 온갖 병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치유하셨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에게 메시아를 빙자한 중죄인으로 보였을 것이다. 따라서 하느님께 충성하는 자신들로서는 이 가짜 메시아를 없애야만 했다.

2. 하느님께서 정하신 계획대로 넘겨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다고 선언하셨다(요한 3,14-15 참조). 예수님의 수난은 당신의 아버지께서 원하셨기 때문이며,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의 인성이 십자가의 열매로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루카 24,26 참조). 예언자들도 예수님의 수난을 예언하였다(이사 53장 참조). 그런 예언은 하느님의 뜻이므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루카 24,44 참조). 참사람이신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알고 계셨다(요한 10,18 참조). 그리고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요구하는 것을 자유로이 수락하셨다(마태 16,21 ; 17,22 ; 20,18 ; 요한 10,17-18 참조). 그래서 그분은 자유롭고 순종하는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바쳐 수난을 당하셨다(루카 22,42 참조).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일은 불행한 상황들 때문에 생겨난 우연한 결과가 아니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강림 날의 첫 설교 때부터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에게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예수님이 넘겨지셨다(사도 2,23)고 설명했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에 속하는 일이었다.[5]

1) 최후 만찬

성경에서 수난은 최후 만찬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1코린 11,23) 열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던 중에, 자신을 자유로이 하느님께 바친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표현하셨다. 수난 전날 아직 자유로우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성부께 드리는 자발적인 봉헌의 기념으로 삼으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루카 22,19).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마태 26,28).[6] 이 순간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체 성사는 당

5) 599항.
6) 610항.

신 희생의 “기념”이(1코린 11,25 참조)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봉헌에 사도들도 포함하시고, 그들에게 이를 계속할 것을 명하신다(루카 22,19 참조).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당신 사도들을 새로운 계약의 사제로 세우신다.[7]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 수난의 의미를 명백히 설명하셨지만, 제자들은 부활 후까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2) 겟세마니 고뇌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을 바치심으로써(루카 22,20 참조) 미리 맛보신 새로운 계약의 잔을 겟세마니의 고뇌 중에(마태 26,42 참조)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필리 2,8) 아버지의 손에서 다시 받으신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신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 가게 해 주십시오”(마태 26,39).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인간적 공포를 그렇게 표현하셨다. 하지만 당신의 인간적 의지로 성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임으로써(마태 26,42 참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 나무에 달리시어”(1베드 2,24) 당신 죽음을 속량을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이셨다.[8]

3) 십자가형

예수님은 부당한 판결을 받으셨다. 재판을 받으시면서,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다. 그분은 조소와 모욕의 대상이 되셨고,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베드로는 그분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하였다. 예수님은 매질과 침 뱉음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셨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군중이 사나워 십자가형을 선고하였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는 극심한 고통과 고독을 느끼셨고 괴로워하셨다. 그러나 그러한 극도의 고통의 시각에도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구원의 대사제이신 예수님께서는 인내와 위대한 정신을 잃지 않으셨다(마태 27,46 ; 루카 23,34 ; 23,43 ; 요한 19,26-28 ; 19,30 참조)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셨다. 하느님의 아드님이 우리 인류을 위하여 죽으셨다.

“의로운 이를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로마 5,7-8)

3. 희생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1) 하느님의 승리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느님의 구원이 성취되었다. 성부

---

7) 611항
8) 612항

와 성자와 성령의 영원한 사랑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였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악과 옛 율법과 죽음의 올가미를 누르고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육체의 죽음까지도 정복되었다(1고린 15,54-57참조). 이와 같은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 준다. 아버지 하느님은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 주셨다"(요한 3,16).

2) 사제이신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당신 목숨을 바치셨다(마태 20,28 참조). 그리고 참사람이시며 참 하느님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의 대사제이시다(히브4,14). 사제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느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다. 예수님은 스스로 완전한 제사를 봉헌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원을 이룩하셨다(히브 9,1-10 ; 10,12-14 참조).

3)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한 하느님과의 화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이루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사람의 죄를 대신해 속죄하셨다. 이로써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첫 사람의 죄로 인한 온갖 분열 또한 극복되었다. 죄는 사람을 소외시키는 근본 원인이고, 사람을 하느님에게서 갈라놓기 때문이다(에페 2,13 참조). 죄는 사람들 사이에 불화와 적의를 조성하고 개개인 안에 내적인 쓸쓸함과 비합리적인 생각을 일으킨다(로마 7,23-24 참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평화이시며, 적개심으로 우리를 갈라놓는 담을 헐어 버리셨다(에페 2,15 참조). 이는 예수님께서는 파스카의 어린양처럼 당신을 희생으로 바치시어, 하느님 아버지께 화해의 제사를 지내셨기 때문이다. 곧 대사제로서 속죄의 제사를 올리신 것이다(히브리서 7,26-27 참조).[9] 예수님께서는 새롭고

9) 구약의 제사 :
이스라엘 제사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벨은 가축의 맏배를 바쳤고, 카인은 곡식을 바쳤다(창세 4장 참조). 멜키체덱에 이르러 온전한 제사의 형식이 갖추었고, 모세는 시나이산에서 주님으로부터 십계명과 함께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제사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즉 봉헌할 제물의 종류와 봉헌할 장소 그리고 예식 및 제사를 집전하는 사제의 자격 등을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셨다. 그 후부터 유대아 제관들은 매일 두 마리의 어린 양을 잡아 주님께 봉헌했다(민수 28 참조). 이 제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파스카 축제를 지내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유대아의 역사에 나오는 제사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불의의 재앙이 닥쳐왔을 때, 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께 제물을 봉헌하였다(미카 12,43-46). 그러나 이스라엘인들이 제사의 참된 정신을 망각하자 이사야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나는 이제 숫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굳기름에는 물렸다. 황소와 어린양과 숫염소의 피도 나는 싫다. 너희가 나의 얼굴을 보러 올 때 내 뜰을 짓밟으라고 누가 너희에게 시키더냐? 더 이상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향 연기도 나에게는 역겹다. 초하룻날과 안식일과 축제 소집 불의에 찬 축제 모임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이사 1,11-13). 이렇게 부당한 제사를 거부하시면서 장차 완전한 제사가 유대아에서 뿐 아니라, 전 세상 곳곳에서 봉헌될 것임을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성전 문을 닫아걸어서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였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다.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나는 너희 손이 바치는 제물을 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해 뜨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를 지내셨다(히브 7,27. 9,23-28. 10,9-10 ; 로마 6,9-10 조).

이로써 예수님은 하느님과 인간과의 화해를 가져온 중개자가 되셨다. 곧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써 사람이 되시어 사람을 위해 아버지께 중개자 역활을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골로 1,20).

II. 예수님의 부활

이스라엘 백성은 파스카 어린양 덕분으로 죽음에서 구원되고,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10] 이는 신약의 예표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희생으로 우리 사람은 죄로 인한 죽음에서 구원되었고,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 곧 신약의 백성이 되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죄 많은 우리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파스카의 어린양이시다. 그리스도께서 파스카의 어린양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신비를 증명해 주신 것이다. 우리는 파스카의 어린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따름으로써 파스카의 구원 신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1.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 신비는 신약성경이 증언하듯이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들을 보여주는 실제 사건이다. 서기 56년경에 이미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나도 전해 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 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흗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열두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1코린 15,3-5). 사도는 여기서, 다마스쿠스 성문 근처에서 개종한 뒤에 알게 된 부활에 대한 살아 있는 전승을 말하고 있다(사도 3-18 참조).[11]

1) 구약성경의 예표

예언자 이사야는 주님의 종이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죽으리라고 예고를 한다. 그러나 주님의 종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

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드높다. 내 이름이 민족들 가운데에서 드높기에, 곳곳에서 내 이름에 향과 정결한 제물이 바쳐진다.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말라 1,10-11). 그러나 구약의 이러한 제사는 예수님께서 바치신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를 향한 예표이다.

10)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느님의 사람 모세의 인도로 탈출을 한다. 하지만 그 탈출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곧 이집트 왕 파라오의 저항 때문이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그중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의 모든 맏배를 치셨다. 그러나 문설주에 바른 어린양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표징이 되어 하느님의 천사가 지나감으로 인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 그래서 ‘파스카’란 ‘거르고 지나가다.’란 뜻을 지닌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어린양의 피’ 곧 ‘파스카 양’ 덕분에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11) 가톨릭 교회 교리서, 639항.

음 뒤에는 떠오르는 빛이 있음을 덧붙인다.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이사 53,11) 또한 내세관이 뚜렷하지 않던 시절에도 다윗은 “당신께서는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는 구렁을 아니 보게 하십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니 당신 면전에서 넘치는 기쁨을,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을 누리리이다.”(시편 15,10-11 참조)라며, 내세의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였다.

2) 신약성경

(1) 수난 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난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3번씩 하셨다(마태 16,21-23 ;17,22-23 ; 0,17-19 ; 마르 9,2-8.30-32 ; 10,32-34 ; 루카 9,28-36.43 ; 18,31-3 참조). 이 성경 구절 모두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한다. 아직 신앙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

(2) 제자들의 몰이해

제자들도 유다인들의 전통적인 메시아 관에 집착해 있었다(루카 24,19-21 ; 마태 20,20-28 참조). 베드로의 신앙고백(마태 16,13-20 ; 마르 8,27-30 ; 루카 9,18-21 참조)에 나타나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영글지 못하고, 그들의 희망은 우선 현세적이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자 뿔뿔이 흩어짐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3) 부활의 징표

(1) 빈 무덤

복음서들은 한결같이 소박하고 꾸밈없는 이야기로 부활 사건을 전한다(마태 28,1 이하 ; 마르 16,1 이하 ; 루카 24,1 이하 ; 요한 20,1 이하).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증언은 빈 무덤의 발견에서부터 시작된다.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루카 24,5-6). 파스카 사건의 테두리 안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징표는 바로 빈 무덤이다. 곧 빈 무덤은 모든 사람에게 핵심적 징표가 된다. 제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인정하는 첫걸음이었다. 먼저 거룩한 여인들의 경우가 그러했고(루카 24,3.22-23 참조), 다음에 베드로의 경우가 그러했다(루카 24,12 참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요한

20,2)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20,6) 발견하고, “보고 믿었다.”고(20,8 참조) 전한다.[12]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아직은 부활에 대한 깨달음은 일어나지 않는다(요한 20,1-10 참조).

(2) 발현[13]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거룩한 여인들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을 만났다(마태 28,9-10 참조). 그들은 성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서둘러 매장했던(요한 19,31 참조)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마저 발라 드리려고 무덤에 갔다(마르 16,1 ;루카 24,1 참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들에게 알린 첫 사람은 여인들이었다(루카 24,9-10 참조).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먼저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어서 열두 사도들에게 나타나신다(1코린 15,5 참조). 베드로는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도록 부름을 받았기에(루카 22,31-32 참조) 그들보다 먼저 부활하신 그분을 보았고, 그의 증언을 듣자 공동체는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24,34)고 외친다.[14]

이처럼 빈 무덤이나 발현에 대한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징표이다. 표징은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하는 빈 무덤이나 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빈 무덤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소와는 다른 차원에 계심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다. 부활하시어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예전과 같이 식사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나, 한편으로는 다른 상태를 가지신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느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이다.

2. 사도들의 부활 체험과 선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만지게 하시고(루카 24,39 참조),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써(24,30.41-43 참조)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신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유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이끄시며(24,39 참조),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나타나 부활하신 그 육신이 수난의 흔적을 아직 지니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육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24,40 참조). 한편 이 참되고 실제적인 육신은 영광스러운 육신의 새로운 특성들도 함께 지니고 있다. 이 육신은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나타날 수가 있다(마태 28,9.16-17 ; 루카 24,15.36 요한 20,14.19.26 참조). 왜냐하

12) 가톨릭 교회 교리서, 640항.
13) 마태 28,9-10.28,16-20 ; 마르 16,14-21 ; 루카 24,36-49 ; 요한 20,11-18 ; 21장 참조.
14) 가톨릭 교회 교리서, 641항.

면 그분의 인성은 더 이상 지상에 매여 있지 않고 다만 성부의 신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요한 20,17 참조). 이런 이유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정원지기의 모습이나(20,14-15 참조) 또는 제자들에게 친숙한 모습과는 "다른 모습"(마르 16,12) 등 얼마든지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이는 분명 그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요한 20,14.16 참조)[15]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성령강림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한다.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 부활하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선포한다. 이와 같은 용기는 사도들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서 온 것이다. 즉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체험하고 믿게 되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체험하고 깨달았을 때, 그들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사도로 변화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믿음과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3. 부활의 의미와 구원 효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시고,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로마 6,4).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여라."(마태 28,10) 하고 제자들을 형제라 부르셨듯이, 부활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엄청난 은총의 선물이 된다. 그리고 외아드님의 생명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 부활의 근원이며 원천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맏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1코린 15,20-22). 이 완성을 기다리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이들의 마음 안에 사신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의 생명 안으로 이끌려 가게 된다. 이는 그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2코린 5,15).[16]

III.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다.

부활의 신비는 예수님의 승천에서 절정에 이른다. 부활하신 뒤 여러 차례 발현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

15) 가톨릭 교회 교리서, 645항.
16) 가톨릭 교회 교리서, 654-655항 참조..

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사도 1,2),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사도 1,9). 그분은 부활하신 육체와 당신 영혼을 갖고 승천하셨다.

예수님 승천의 신비는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승천은 예수님께서 영광에 드시는 일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그대로 간직하신 채, 당신을 보내신 성부께로 돌아가신 것이다. 둘째, 승천은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게 수행해 오신 직무를 종결지으신 시각을 말해준다. 그리고는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마르 16,19). 그리스도의 육신은 그 육신이 언제나 누리는 새롭고 초자연적인 특성들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루카 24,31 참조), 부활의 순간부터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러나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 음식을 먹고 마시며(사도 14,41 참조)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40일 동안에는(사도 1,3 참조),[17] 아직도 그분의 영광은 보통 인간의 모습에 가려져 있다(마르16,12 참조). 예수님의 마지막 발현은, 구름과(사도 1,9 ; 루카 9,34-35 ; 탈출 13,22 참조) 하늘로(루카 24,51 참조) 상징되는 하느님의 영광 안으로 그분의 인성이 결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맺는데, 이제 그분은 하느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마르 16,19 ; 사도 2,33 ;110,1 참조) 그분이 바오로를 사도로 임명하는(1코린 9,1 ; 갈라 1,16 참조) 마지막 발현에서, "칠삭둥이 같은"(1코린 15,8)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것은 온전히 예외적이고 유일한 일이다.[18]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히브 9,24) 그분은 승천하셨지만, 우리를 버려두고 가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영원한 대사제로서 성부께 나아가셨다(히브 7,21-28 참조).

교회는 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1고린 15,14)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을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점이다.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면서 동시에 참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인간의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간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새

17) 루카 복음서에는 부활과 승천 사이에 40일간의 시간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시간적 차이나, 천문학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그 지위를 말해주는 표현이다(에페 1,20 참조). 그리고 승천은 예수님과 천국 사이의 어떤 변화를 주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바꾸는 사건이다. 승천하시어 이 세상을 등지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의 관계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입으시고 생명에 드심으로써, 그분은 모든 시간과 공간에 자리 잡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초대 교회 공동체 교우들을 위하여 선교적이고 교리교육적인 가르침이 포함된 것이다.

18) 가톨릭 교회 교리서, 659항.

로운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다. 새로운 생명이란 하느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다시는 죽지 않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신앙을 바탕으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안고 새 사람으로써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바탕이며, 신앙생활의 중심이다.

「가톨릭 교리서」는 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셨습니다"(사도 13,32-33).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신앙 진리의 정수이다.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이를 중심 진리로 믿고 실천했으며, 성전(聖傳)이 근본 진리로 전승하였고, 신약 성경의 기록으로 확립되어 십자가와 함께 파스카 신비의 핵심 부분으로 가르쳐 온 신앙 진리이다.[19]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일 것이다"(요한 12,32).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림은 승천으로 하늘에 높이 오름을 의미하고 예고한다. 십자가는 승천의 시작이다. 새롭고 영원한 계약의 유일한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히브 9,24).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당신의 사제직을 영원히 수행하고 계신다. 그분은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그분께서는 늘 살아 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빌어 주신다"(히브 7,25).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사제"(히브 9,11)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전례의 중심이며 주재자이시다(묵시 4,6-11 참조).[20]

19) 가톨릭 교회 교리서, 638항.
20) 가톨릭 교회 교리서, 662항.